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두렵게 하지 마소서

성경: 욥기 13장 13-23절

Tag: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17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 13:13-23)

욥은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욥의 태도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죽음 앞에서 욥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는 자기가 왜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고 싶어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욥이 왜 그렇게 큰 복과 많은 복을 받았으며, 망한 이후에는 더 큰 복을 받았는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잠깐, 상황 설명.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다.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아마 둘의 깊은 관계는, 그 관계의 깊이는 오직 둘만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욥의 친구들도 매우 깊은 관계였던 것이 확실하나, 하나님과 욥의 관계만큼은 아닌 듯하다.

문제는 사탄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고소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기 시작하셨다. 욥같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악을 멀리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하셨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에는 죄사함의 방법으로, 양과 염소의 제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시절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제사가 없던 시절이었다.

제사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욥은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을 위한 제사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칭찬받을 만한 자였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갑죽대면서 욱을 헐뜯기 시작했다.

욕이 저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였다.

하나님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었다.

사탄은 만약에 하나님이 욱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욱도 변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욱을 믿었다. 그 심성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욱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걸? 내 허락할테니 네가 한번 욱에게 가서 그가 원망할만한 뭐든지 해 보거라. 다만 욱의 생명 만큼은 건들지 말거라. 하였다.

그러자 사탄은 옳다 꾸나, 잘 되었다 내가 욱에게 아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큰 재앙을 쏟아야 하겠다.

그는 욱의 모든 재산을 없애고, 욱의 모든 자녀를 죽이고, 심지어 욱의 아내까지 욱을 저주하도록 조종했다. 그리고 욱의 온 몸에 욱창이 나서 가려워 잠도 자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도 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 중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였을 뿐,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거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사탄은 화가 나서 욱을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욱은 끄떡하지 않았다.

오늘 읽은 13장 말씀은 욱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는 친구들의 말에 욱이 화가 나서 대꾸하였다.

사탄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욱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였다.

그러나 욱의 입술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득할 뿐 도무지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욕은 온 몸이 가려운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한가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다. 깨닫기만 한다면 죽어도 좋겠다는 심정이었다.

사탄으로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욕으로서도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어도 하나도 아까운 기색이 없다.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도, 슬퍼하고 기가 막혀만 할 뿐 원망은 없고, 왜 그러셨을까만 궁금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욱의 모습은 당당한 개인이다. 욱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판단과 공의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다.

설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욱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아무튼 어떤 이유여서든 하실만 한 일을 하시는 것이며,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이며,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시는 것이며, 원하시는 때에 하시는 것임을 믿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곁에서 사정도 모르면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도저히 못참겠으니 그 입 다물라!

너희들이 무슨 말 할건지 내 다 안다!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들은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자들이다. 이 돌팔이들아~ 잠잠히 있으면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변호라도 할 셈이나? 나를 거짓말로 고발이라도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해설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생각이다.(13-14)

나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겠느냐? 나까지 죽이실 것 같지만 나로서는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다.(15)

만약 내가 그동안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것이다.(16)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구원으로 여기겠다.(16) -속 시원한 답만 들어도 구원이겠다.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분명히 잘 들어라. (17)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도 더 이상 나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18)

(그러나 친구들의 말이든, 욥의 말이든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다. 다물고 있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면, 나는 잠잠히 풀 죽어 있겠다.(19)

오직, 하나님 두가지만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기 전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죽음을 무릎쓰고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21)

-욥은 자신이 두려워 달달 떨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욥은 지혜가 가득한 자다. 그는 용감한 자다. 아직 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없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의 규례를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제사에(예배에) 철저하였고, 제사에 관한 한 부끄러움이 없었다.

-욥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오로지 제사 외에는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도 믿었다. 이런 믿음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욥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욥이 아는 바 대로는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듣고 의문이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하니, 말 문이 막힌다. 두려워서 오금이 저

린다. 혹시라도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적발하실까 봐 부끄러움이 온 몸을 감싸고 친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도데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22)

하나님!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23)

왜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나요? 이제 나를 원수처럼 대 하시네요.(24)

-싸늘하신 하나님. 잠잠히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정답.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보내셔서 나를 겁박 하십니까?(25)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이에요, 마른 지푸라기지요. (모든 인생의 실존)

나를 유치장에 가두시고, 내 발자국까지 세밀하게 정밀감정 하시는겁니까?(27)

보세요, 지금 나는 썩고 낡았네요. 좀 먹은 옷과 같이 되었습니다.(28)

여전히 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전히 옴은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다. 하나님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는 기분이 아니다.

대개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면, 네가 나에게 이럴수가 있어? 하고 서운한 마음만 들어도 더 이상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고 싶어한다.

그러나 옴기의 옴은 그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평상시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 오히려 두렵다. 웬일로 화가 나셨을까, 내 자식들을 모두 죽이셨는데, 나도 죽이실까 두렵다. 그렇지만 이유라도 알고 싶다. 맘껏 회개하고, 맘껏 후회하고 통곡하고 싶은데, 도무지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막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니, 두렵다.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되는데, 덜덜 떨면서 아무말도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이런 표현이 옴의 가장 옴다운 모습.

옴기의 결론

옴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옴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보아라.

만약 정답을 알아 맞추면 나도 네가 궁금해 하는 답을 주겠다.

1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니?

2번.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했니?

3번. 그것의 주춧돌은 무엇 위에 세웠니? 누가 모퉁이돌을 놓았니?

...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만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옴에게 하셨다.

-옴아 이 귀중한 질문의 시간에 왜 쓸모없는 질문을 궁리하느냐?

모든 인생은 죽게 되는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요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한 사람을 죽이시고, 병약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신들, 네가 간섭할 수 있느냐?

네 자식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준들 네가 무슨 상관이나?

-차라리 알고 싶은 것이 있거든, 창조세계에 관해서 물어보렴, 내가 답하리라.

-사실 옴기에는 창조세계에 대해서 계시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계시가 담겨있다. 오늘 우리는 옴의 친구들처럼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듯한 질문은 그만두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옴이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열정을 다해 답해주실만한 질문을 하자.

-우리는 옴의 시대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묻고 해답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고, 그 지혜 창고의 문을 두드리라.

-절망중에 있느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중에 있느냐?

-문제가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 궁금하냐?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